

제주사회복지신문

◇ 2020년 9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전화:(064)702-3783~4 / 팩스:(064)702-3383 제155호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 비대면으로...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2단계 등 조치 강화 따라 오는 7일 협의회서 시상식...국민포장 등 42명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을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제주지역 사회복지유공자는 총 42명으로 국민포장 1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20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5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2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6명이다.

국민포장 수상자로는 도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故고치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선정됐다. 시상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제31회 전국 사회복지 대회’에서 진행된다.

사회복지의 날부터 9월 한 달 간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로 4행시를 지어보는 ‘사회복지 4행시를 부탁해’와 퀴즈를 통해 사회복지 지식을 배우는 온라인 퀴즈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크고 작은 생필품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집시일반 나눔 상자 만들기’가 진행된다. ‘사회복지 4행시

를 부탁해’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기간동안 협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링크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퀴즈쇼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기간동안 협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된 주소와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여 9월 7일로 지정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국민포장 △故 고치환 전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고선희 제주시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양선 제주대학교병원 팀장 △박상현 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원장 △성현숙 제주특

별자치도 지방사회복지주사 △양진규 형제상사 대표 △장운성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에코소랑 △유진단기거주시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무지개마을 양미정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장경미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홍원혁 △하소로지역아동센터 오효선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그린터 박신영 △제주시희망원 김태규 △남제주노인복지센터 이수민 △유진주간활동센터 강형주 △성이시돌요양원 김경익 △한인구 정혜재활원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김유철 △서귀포여자중장기청소년센터 강경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문지희 △온누리봉사회 김흥철 △손뜻모아봉사회 강행욱 △제주특별자치도사회

복지협의회 고경연 △행복나눔푸드마켓·푸드뱅크 이매연 △이든이네 최은규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어머니빵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 △제일요양원 고경숙 △제주케어하우스 김영신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강정열 △아라어린이집 장신욱 △온누리봉사회 김재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주)재밌섬파크 이재성 △제주시 지방보건주사 송천수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김애란 제주시희망원 △김민서 에텐노인복지센터 △이도현 제주노인복지센터 △고희정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김희열 아라어린이집 △김은희 발사랑봉사회

<관련기사 2·8면>

“여름 김장김치로 코로나19 이겨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5개 자원봉사단체(온누리봉사회, 좋은인연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 작은세상봉사단, 꿈드림봉사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릴레이 김장김치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해 사회복지시설 7곳과 재가대상자 100가정에 전달했다.

사진은 좋은인연봉사회(회장 탁후남) 봉사단원들이 김장김치를 담그는 모습.



지면소개

- 종합2면
사회복지 종사자 21.1% 인권침해 경험
- 사회복지소식 4면
복지정보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
- 오피니언 6면
시론·법률홈닥터

<나눔 참여 기관·기업 광고④>

제주의 발전을 생각하는 제주 향토기업 주식회사 제우스

도민의 건강을 위한 첫 걸음
제우스가 함께합니다.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크 생산
제주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E:US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사회복지 종사자 21.1% 인권침해 경험

박차상 한라대 교수, 전문가 토론회서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제주도시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지난달 1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관련 복지관, 시설, 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종사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1.1%가 최근 1년간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에 의한 경험이 15.0%, 중간관리자에 의한 경험 12.6%, 시설장에 의한 경험 11.6%, 직장동료에 의한 경험이 9.0%, 시·도청관계자에 의한 경험이 7.8%, 지역주민에 의한 경험 5.8%, 동료에 의한 경험 5.3%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교수는 “사회복

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개발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입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라며 “매년 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체감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주 지역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지속적 지원방안 논의 필요”

지난달 6일 도의회서 ... 정책토론회 실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는 지난달 6일 도의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토론회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제주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어 김경학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영열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 최영광 대구 남구청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 김대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장,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이 토론

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경학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마련이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관건이므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지원 방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제주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주거비·교육비·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제주도는 대상별 특성에 맞게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의 저축통장

을 지원하고 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일반 적금통장과 다르게 본인 저축액에 추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만기 시 납입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장가입기간 동안 4회에 걸친 재무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가계운영의 유용한 정보와 지식, 고용, 복지,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8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등뼈 246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 3,436개 ▲(주)쿵스도어 제주이도점=빵 342봉
- ▲굿샵=식료품 342개 ▲남안상회=미숫가루 24봉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240개
- ▲대한전리고 대선교회=쌀 430kg ▲던킨도너츠 탑동점=빵 1,232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311봉 ▲동원 F&B제주지점=동원식품 2,648개 ▲팡스부대찌개 노형점=두부 24kg ▲팡스부대찌개 삼화점=두부 12kg
- ▲떡방동행=떡 248개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1,152봉 ▲롯데제과=롯데제과식품 8,653개 ▲모양=빵 231봉 ▲미인빵=빵 210봉 ▲비엔뉴아즈=빵 187봉
- ▲소민떡방=떡 163개 ▲알파통상=식료품 195개
- ▲약속다방=쿠키 76개 ▲이든이네=멸치 30kg ▲제주보리촌=보리빵 400개 ▲주인성=돼지등뼈 75kg
- ▲참새방앗간=떡 1,173개 ▲코시통뚝비=두부 103개
- ▲픽스커피공단점=빵 56봉 ▲해맑은 떡방= 292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530,000	64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1,0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600,010	600,010
복 지 사 업 후 원	995,000	0
푸 드 마 켓 후 원	2,945,000	5,876,000

발 행 안 내

- 발행인 : 고승화
- 편집인 : 김성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故고치환 전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국민포장



故 고치환 전 회장

故고치환 전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이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1회 사

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심사 결과故고치환 전 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故 고치환 전 회장은 제주도 최초의 치매노인요양시설과 실비전문요양시설 설립으로 제주도 노인복지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

업의 선도적 실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인프라 확산에 힘써왔다.

또한, 2014년부터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며 기부식품 물류센터 건립으로 식품나눔사업의 획기적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연계활성화 등 사회복지현장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했다. <관련기사 1면>

복지정보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

'제주복지콜' 1833-9514 ... 9월부터 본격 실시

도민을 위한 사회복지정보 전화상담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오는 9월 복지정보 전화상담 시스템 '제주복지콜(Call)'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833-9514를 대표전화로 하는 '제주복지콜'은 통합복지하나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복지정보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1차상담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뤄지며 2차 상담은 지역복지, 장애 일반, 발달장애,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정신건강, 노인복지, 사회서비스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10개 기관에서 이뤄진다.

특히, '제주복지콜'은 상담의뢰자가 전화번호를 남길 경우 상담자가 확인 후 전화하는 '콜백(Call

Back) 시스템'과 문자로 상담 또는 정보제공 요청 시 문자로 응답하는 문자상담(1877-2126) 체계도 병행해 복지정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시설, 단체 정보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 '제주복지통'을 개통했으며, 올해는 복지정보검색, 온라인 상담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인터넷 웹(web) 시스템 '제주복지넷'을 구축중에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온라인 생중계 성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소장 최희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 날 공연은 샌드아트 '류희' 작가의 오프닝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 풍물 멘토링 참여자가 준비한 통북놀이와, 장애인밴드 '봄날', 제주장애인 휠체어댄스 연맹의 휠체어 댄스,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예술가인 가수 양정원, 윤명희, 김원필씨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또, 제주장애인문화예술



▲ 지난달 20일 열린 2020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서 장애인밴드 '봄날'이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센터 연극자조모임 '서툰사람들'은 코로나19의 원인을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의 악한 마음이라 풍자하는 마당극 공연을 도채비 놀이로 풀어냈다.

이와함께 공연 중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준비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연락 홍보 영상도 함께 상영됐다.

최희순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도 많이 변했지만 예술가의 꿈을 키우는 장애인 예술가의 활동을 예술로 인정하기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장애인도 꿈을 통해 살아가는 일상의 존재임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청각 중복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제주도는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을 통해 시청각 중복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 이어 올해 1억 4,000여 만 원을 투입해 시청각 장애인 전용 서비스 지원실과 보조기기교육실 등을 조성하고, 점자정보단말기·입체복사기·독서확대기·점자스마트워치 등 각종 기자재를 구입해 비치했다.

또한, 시청각 중복 장애인 실태조사 및 복지 관련 연구 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3명도 확보했다.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도내 시청각장애인 현황 파악

(835명),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63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761명), 복지자원 정보 제공 및 연계(68건), 발달교육 프로그램 운영(연 270명)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 지원인력 양성(22명), 시청각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4회)도 전개했다. 특히, 전문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등 6개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출시

제주도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임신·출산·양육 진화 환경 조성을 위해 NH농협은행과 협력해 'New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오는 9월 새롭게 출시한다.

발급 대상은 기존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이었지만, 새로 출시되는 카드는 막내가 만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부 포함)으로 확대됐다.

특히, 전기차 충전 요금 30% 감면, 도내 테마파크 입장료 할인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확대·신설했다.

새로 선보이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제시하면 제주도 협력가맹점(출산용품, 학원, 관광지, 외식업체 등)에서 일부 무료, 3~50%의 현장 할인, 문예회관·제주아트센터 등 도내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및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 대상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9월 14일부터 거주지 인근 농협은행 각 지점 및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발급문의 : NH농협카드고객센터 ☎1644-4000

SNS 나비새김 캠페인 집중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SNS 나비새김 캠페인 참여 유도를 위해 14~22일까지 집중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세대간 이해와 공감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100일 동안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주지역 집중 홍보 기간(9. 14. ~ 9. 22.) 운영을 통해 SNS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노인인식개선 사진전 개최, 제주시내 사회복지기관 방문을 통한 SNS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SNS 나비새김 캠페인은 유튜브 바이럴 영상 시청,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학대피해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는 나비새김 홈페이지(navi1389.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커플교육 실시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운)는 오는 5일과 12일 센터 3층 교육장에서 '커플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오는 5일에는 MBTI 성격유형검사 및 분석과 커플 일러스트 그리기 교육이 마련된다.

이어 12일에는 MBTI 성격유형 분석 및 커플 대화법과 부케, 부모노이에 만들기가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나와 연

인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을 통해 연인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현명한 갈등 대처 방법을 익혀 더욱 성숙한 연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familynet.or.kr) 또는 전화(725-8005)로 가능하다.

소/식/마/당

(무순)

위탁부모 자립교육 마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달 5일과 11일 카페세린에서 위탁부모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탁부모 자립교육 ‘당신은 자립의 동반자’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 영역 교육과 위탁부모의 역할 숙지, 자립 지원 서비스 및 발달 단계별 자립영역에 대한 이론 교육과 긍정 마인드를 위한 양말목공예 방식 만들기와 미술치료로 진행됐다.

천연제품 만들기 프로그램 개강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태균)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제2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달 7일 신장장애인의 건강한 피부생활을 위한 천연제품 만들기 ‘건강하게 맑게 자신있게!!’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센터 관계자는 “신장장애인들의 피부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적 회복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M 흙공 던지기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13일 장애인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 지원사업인 에코 투게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걸매생태공원과 삼성여고 내에 있는 연못에서 ‘EM흙공 던지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이를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동물매개심리상담사 2급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매개심리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이론 36시간(총12회기), 실습 12시간(총 2회기)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매개심리상담사 2급’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기능성 마스크 전달 눈길



수운교청정봉사단(단장 김옥산) 임원진과 봉사자들은 지난 7월 29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승태)을 찾아 135만원 상당의 ‘입모양이 보이는 기능성 마스크’ 50개와 음료수를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는 봉사단 창단 10주년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경비로 회원들이 직접 제작했다. 마스크는 제주노동야복지관, 제주도수화통역센터 등으로 배분했다.

폐품공예 프로그램 운영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2020년 제주삼다수Happy+공모사업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생태적 삶의 실천을 위한 폐품공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함께 플라스틱, 캔, 커피봉지, 낡은 청바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공예품 만들기로 진행된다. 사업은 지역주민 연계활동으로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와 제주연구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단장 고미영)은 지난 7월 27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센터는 바우처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이해 교육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센터와 공유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가구 전달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소장 김산옥)는 최근 가구업체 넥스(대표 이찬근)에서 어린이 옷장을 후원받아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 전달했다.

이찬근 대표는 “책상을 전하러 갔을 때 열악한 집안 환경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전기, 싱크대 등 부수적인 일들을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도모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송문환)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환인 ‘우리동네동백문화교실’을 진행한다.

송문환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조활동 보석십자수 실시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선)는 지난달 15일 토달공예 프로그램의 일환인 자조활동 보석십자수를 마무리했다.

이번 자조활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행복 신랑 각시 시리즈, 부엉이 가족시계, 빨간머리앤·부엉이 스티커 어린이반, 재물장수시리즈(부엉이, 코끼리), 꽃피는 대한민국, 여인과 나비 등 총 13개 작품을 완성했다.

한울회 봉사·후원 활동 전개



한울회(회장 김용신)는 지난 7월 27일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를 방문해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울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청렴 제주교육문화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어부바 멘토링’ 사업 진행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는 지난 6월부터 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주Y신협과 함께하는 ‘어부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6월 협약식을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은행 업무와 건강한 소비문화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9월에는 벼룩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론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보지 않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이다. 그것은 기관 간 협력을 뛰어넘어 업무의 통합이다. 공공과 민간이 별도로 관리하던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일괄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관마다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이나 종합복지관 등 가까운 곳 어디든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만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자원을 그물망 치듯 찾아내고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부족에 따른 수요자 복지서비스 누락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는 사회적으로 소외 대상자일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었거나 거동이 불편했거나 등등. 누구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수요자에게 공공기관

이나 복지시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가? 수요자에게 최고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중복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공공기관 따로, 복지시설 따로 관리하던 복지서비스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정보가 공유되면서 복지서비스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민·관의 긴밀한 정보 공유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사후 관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바로 '제주형 통합 복지하나로'이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원스톱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제주 복지전달체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종합복지관이 있는 제주시 아라동과 노형동, 서귀포시 동홍동 등 3 곳에서부터이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곳곳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사례 관리되고 있는 수요자 개인 정보에 대해 노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개인 정보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책임 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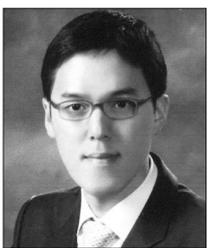
그래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는 앞으로 도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적용하는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모처럼 시작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가 제대로 정착하고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영 조
제주숲치유연구센터 대표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74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작년 가을 이 곳 지면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법적 절차'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내용에 변동이 있어 다시 법률 개정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다.

기존 학교별로 운영해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

여 왔고 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학부모대표 선정 과정에 대한 준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법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무효로 반복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는 법적인 접근보다 교육적 해결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임에도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

개정법 하에서는 기존에 각 학교에 두고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

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다소 복잡하게 나뉘어 있었던 불복절차도 하나로 통합되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교육청 내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이다.

법률적 보완으로 그동안 문제가 된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다소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에 부쳐

'혁신'이라는 화두에 응답하는 사회복지의 날

끝 모를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어김없이 사회복지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9월 7일은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일으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어느덧 올해로 스물한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일상의 변화를 넘어 그동안 꿈꿔 왔던 인류의 미래 모습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한 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포스트(post) 코로나'가 회자되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위드(with) 코로나'를 논해야 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코로나19는 사회복지 현장에도 '변화'의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을 만나지 못하고,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장기화되는 실내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재가대상자에게는 선불리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현장의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혁신'은 필수 과제

다행스럽게도 많은 현장 근무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손을 놓거나 움츠러 들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혁신은 혁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칫 현장경험과 경력에만 의지한 채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혁신을 거부하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포스트(post)나 위드(with)가 아닌 코로나에 종속된 사회복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잡스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은 시스템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형식과 틀을 깨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것이 혁신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막막하고 때로는 무모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치 있고 의미 있을 겁니다.

스물한 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은 코로나19가 복지현장에 던진 '혁신'이라는 화두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훗날 2020년 9월 7일은 코로나19를 이겨낸 사회복지 현장의 혁신이 시작된 날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고 승 화 회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12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보건·의료)

동물 예방접종 등 무료진료 눈길

동물병원이 없거나 수의진료 여건이 취약한 도내 읍·면 지역을 돌며 무료진료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이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회장 양은범)다. 제주도수의사회는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0명의 수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동물병원이 없거나 수의진료 여건이 취약한 도서지역 및 읍·면 외곽지역을 직접 방문해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방지 홍보, 도서지역 가족 무료 진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상시로 구제역, 아프리카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질병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년 제주대 수의대 재학생과 한 팀을 이뤄 우도와 추자도를 포함한 의료접근 취약지역에서의 동물 예방접종, 반려동물등록, 진료



및 건강 상담 등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돼 지역사회 내에서의 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수의사회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교육,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광견병 예방접종 등 회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째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 현지 수의사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 기법을 전수하고 수술기구와 진료 약품을 제공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나 가축질병 관리가 열악한 국가에 선진 수의 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양은범 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도내 도서 읍·면 지역에 양질의 수의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물의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폭염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상담·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위기가구 기획 발굴 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가 입수된 대상 중 지역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13,980원)를 납부하고 있으며, 취약세대 건보료경감내역이 있는 대상자로 서귀포시는 460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조사방식을 우선

실시하며, 대면 조사 필요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가구 등 2,550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중 1,035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공적지원·물품후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년층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

5,627명 실태조사 ... 공공·민간 지원 919건 연계

제주시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급격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6~7월 2개월간 장년층 1인 가구 5,62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험군 701명을 발굴하였고,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919건을 지원했다. 조사대상은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1인 가구로 올해만 50세에 해당하는 1970년 1월 1일~6월 30일 출생자와 2019년 10월 이후 전입한

5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지난해 조사 당시 출·입원으로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5,627명이다. 조사결과 5,627명중 고위험군 82명, 저위험군 217명, 일반군 402명을 발굴했으며, 작년 대비 고위험군은 35명이 늘었고,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위기 가구 402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 701명에게

는 ▲ 복지정보 제공 488건 ▲ 공격급여 98건 ▲ 공공사회서비스 67건 ▲ 주거·고용 등 서비스 연계 143건 ▲ 자체사업(건강음료, 1:1 모니터링) 123건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지속적인 안부살피기를 실시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사내봉사활동 단체인 온새미들 봉사단은 지난달 18일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연안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행원리의 연례행사인 ‘환경정화의 날’을 맞아 온새미들 봉사단과 행원리, Kiost 제주연구소, 구좌읍, 농협 임직원 등 기존보다 참여 기관을 확대해 진행됐다. <사진>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 각 참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안정화와 더불어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상종 공사 본부장은 “발전단지 및 해안가 주변 해안정화를 통해 깨끗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공사 발전단지 인근 및 도내 관광명소를 찾아가 각종 폐기물과 도로인근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성금 기탁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문운영)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제주지부(협회장 김성복)와 한국자활기업협회 제주협회(협회장 강석수)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전달된 기부금은 제주지역 자활기업 ‘제주다’의 ‘MRO(소모성 자재) 공급 종합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2명을 고용해 유통망 확충과 시설 인프라 준비를 추진하고 향후



공공구매 채널을 확대해 고용인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직업훈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3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와 취약계층 고용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삼다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제주삼다수 1만 2700여병(2L)을 추가 지원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삼다수 2만 2400병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시설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함

에 따라 식수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제주삼다수는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부산, 광주, 대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 11개 시·도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생수로서의 역할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이벤트

선물이
팡팡



'사회복지' 4행시를 부탁해

재치 넘치는 4행시를 보내면 풍성한 상품이 한가득!

참여기간 2020. 9.7(월) ~ 9.18(금) 15:00

참여방법



4행시 작성

협의회 SNS에서 참여 링크 확인

4행시 제출

당첨 상품

- 1위(1명) 에어팟 1개
 - 2위(1명) 10만원 상품권 1매
 - 3위(2명) 패밀리레스토랑 루스트플레이스 식사권(5만원) 1매
- 참가상품: 선착순 100명 대상 기프티콘(2천원) 제공

※ 최종 1,2,3 위 선정은 '온라인 퀴즈쇼' 참가자들에 의한 투표로 진행됩니다



"함께 풀어요" 온라인 퀴즈쇼

다양한 사회복지 퀴즈를 온라인으로 풀고! 상품도 받자!

참여기간 2020. 9.21(월) 15:00 ~ 9.25(금)

참여방법

1. 협의회 SNS에 있는 링크주소 또는 QR코드로 접속
2. 퀴즈쇼 문제 풀이(3~4문제)

당첨 상품

1. 정답을 맞춘 선착순 30명 기프티콘(2만원) 제공
2. 정답을 맞춘 30명을 제외한 참여자 100명 기프티콘(2천원) 제공



십시일반 나눔상자 만들기

"작은 나눔을 더하면 큰 사랑을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함께 실천해요!"

참여방법

참여기간 2020. 9.7(월) ~ 9.21(월)



여분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모아



협의회로 연락주시면 (T. 702-3784)



시간 및 물품 수량 확인 후 비대면 수령하고



나눔상자로 제작해 기부해주신 시설·단체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